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의도적 통제

: 유아 성별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ccording to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배운진(Yun Jin Bae), 임지영(Ji Young Lim)*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relations among parent-reported, teacher-reported, and task-observed effortful control, and 2) the difference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based on preschoolers'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affectionate, controll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221 preschoolers (104 boys, 117 girls) and their parents. The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s was measured by Effortful Control Battery (Snack Delay, Turtle and Rabbit, and Red-Green Sign) and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Parenting behavior was measured by the Parenting Style scal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reported effortful control and both teacher-reported and task-observed effortful control.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by gender and level of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And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level of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t is needed to evaluate effortful control in various circumstances and by multiple raters,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had an important role upon boys' effortful control rather than that of girls.

▲주제어(Key Words) :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유아의 성별(preschooler's gender), 아버지 양육행동(paternal parenting behavior),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I. 문제제기

유아들이 보이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은 이후 청년기, 성인기에 그들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보이는 행동적, 정서적 반응의 기틀이 된다(J. Gra-

linski & C. Kopp, 1993). 또한 자기조절능력이 유아기 이후 사회·정서발달과 학업 성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유아기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M. Bronson, 2000; C. Kopp, 1982).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한 내용임

* Corresponding Author : Ji Young Lim, 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1, E-mai: limj@knu.ac.kr

행동 중에 관찰되는 조절 능력, 부모가 보고하는 기질적인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그리고 인지적 과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실행 주의력(executive attention) 등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J. Simonds, J. Kieras, M. Rueda & M. Rothbart, 2007). 그 중에서도 기질의 자기 조절적 요소인 의도적 통제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정서와 관련된 조절 능력의 주요 구성 요소로 밝혀졌으며(N. Eisenberg, C. Smith, A. Sadovsky, & T. Spinrad, 2004),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시사점으로 인해 최근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M. Rothbart & J. Bates, 1998)을 의미하는 의도적 통제는 국외에서는 발달양상에 대한 기초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사회·정서발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까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의도적 통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수의 관련 연구들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Y. Bae & J. Lim, 2011). 게다가 그마저도 사회·정서 영역에만 국한시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Y. Han, 2010; H. Jang, 2013; Y. Lee & E. Chung, 2013; Y. Moon, 2010; J. Park, 2013), 의도적 통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의도적 통제 발달양상을 다룬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 통제를 포함한 기질 특성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I. Jung & H. Hwang, 2009) 의도적 통제의 발달양상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에만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국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가정과 유치원 및 실험 상황에서 각각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도적 통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기 위해 부모가 보고하는 질문지, 교사가 보고하는 질문지, 그리고 연구자가 실험과제를 이용하여 유아를 직접 평가한 점수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연구에서 세 가지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한두 가지 방법으로만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도 하였다(Y. Bae & J. Lim, 2011). 이와 관련하여 T. Achenbach(1991)는 유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며, 같은 행동이라도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유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평가할 때에는 한 가지 보고나 관찰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유아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자료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아는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가정과 기관에서 보이는 행동의 유형, 강도, 혹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J. Venn, 2000). 따라서 연구자가 유아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관에서

유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인으로 간주되는 부모와 교사의 평가(S. Lee, & J. Choi, 2012)는 유아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부모나 교사가 보고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힘들고, 교사는 한 유아의 특성에 관해 다른 유아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는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에서 평소 관찰한 모습을 보고하기 때문에 의도적 통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상황에서의 평가를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사용하여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는 방법은 유아가 보이는 능력이 연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자율적 조절에 의한 의도적 통제의 결과인지 아니면 충동성과 같은 반응적 통제의 결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연구결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지만(T. Spinrad, N. Eisenberg, & B. Gartner, 2007), 유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의도적 통제를 직접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기관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난 의도적 통제와 실험과제 상황에서 연구자가 평가한 의도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얻은 세 가지 의도적 통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의도적 통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의도적 통제에 대한 동일한 질문 내용에 대해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점수 간의 차이여부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가정과 기관에서의 평가 점수가 어떠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있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개인의 여러 발달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도적 통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도적 통제의 기초적인 발달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의도적 통제에 있어 성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G. Kochanska and A. Knaack(2003) 등의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 동안 여아가 남아보다 의도적 통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N. Eisenberg et al.(2003)과 N. Eisenber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측정 방법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의도적 통제의 성차에 관해 Y. Bae(2012)는 질문지 보고자, 측정 방법 및 측정 환경 등에 따라서 성차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의도적 통제 발달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

한다면,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유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의도적 통제 향상을 위해 성별을 고려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의도적 통제가 측정방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의도적 통제는 기질적 요소로서 유전적인 특성들을 반영하지만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그 발달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M. Rothbart & J. Bates, 2006). 과거의 기질 연구에서는 기질을 타고난 특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만 여겼지만, 최근의 기질 연구는 타고난 특성뿐 아니라 영유아기 동안 나타나는 환경에 의한 개인차에도 초점을 둔다(M. Rothbart & B. Sheese, 2007). 따라서 의도적 통제의 발달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통제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유아기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도적 통제와 관련지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기조절 특히,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아동은 사회화 과정에서 주요대상인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정서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다(C. Kopp, 1982). 또한 부모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와 일관성 있는 규제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J. Belsky, 1984), 이것은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도 해당이 된다. 몇몇 선행연구들(N. Eisenberg et al., 2003; Y. Han, 2010; G. Kochanska, K. Murray, & E. Harlan, 2000; Y. Moon, 2010)은 부모의 정서 표현, 반응성, 긍정적인 표현 등이 영유아기 자녀의 의도적 통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J. Park(2013)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및 헌신과 긍정적인 관심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정적 상관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Y. Lee and E. Chung (2013)에 따르면,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독립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Y. Bae and J. Lim(201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애정적 혹은 통제적인 양육행동 수준에 따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제로 하면서도 아버지는 제외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포함하고 있는데(A. Karreman, C. van Tuijl, M. van Aken, & M. Deković, 2008)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역시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부와 모 각각의 양육행동에 따른 의도적 통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H. Chang, S. Olson, A. Sameroff and H. Sex-

ton(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및 외현화 문제를 포함하는 매개 모형이 남아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의도적 통제에 대한 양육 행동의 영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E. Lim and S. Kim(2011)은 부모 변인들과 유아의 정서조절력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S. Park(2006)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용적 부모양육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M. Chung and J. Yuh(2010)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비롯한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때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시 말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정서 영역 간의 관계에서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J. Choi & J. Ryu, 2012; P. Heaven, K. Newbury, & A. Mak, 2004; H. Lee & Y. Yu, 2010; H. Oh & J. Lee, 2013; S. Seong, 2007; H. Yu, 2003)에서도 비록 의도적 통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함으로써 의도적 통제에 대한 자녀 성별과 부모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봄으로써 의도적 통제에 대한 양육행동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에 따른 의도적 통제 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측정방법별 의도적 통제 점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의도적 통제를 평가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의도적 통제 점수 즉, 부모(양육자) 보고, 교사 보고, 실험 측정 점수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 따라 달라지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양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 측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 측정) 간에 상관이 있는가?

[1-2]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부모 보고, 교사 보고)는 평가자(부모,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 측정)는 유아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애정적, 통제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유아의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 측정)는 유아 성별과 아버지 양육행동(애정적, 통제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유아의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 측정)는 유아 성별과 어머니 양육행동(애정적, 통제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유아의 의도적 통제

의도적 통제는 M. Rothbart and D. Derryberry(1981)가 기질을 정서, 행동 및 주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타고난 개인차라고 정의하면서, 자기조절 즉, 반응성의 조절에 해당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지칭하였다(S. Ahadi, M. Rothbart, & R. Ye, 1993). 즉, 의도적 통제는 '특정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M. Rothbart & J. Bates, 1998)을 의미한다.

유아기 의도적 통제는 주의 집중(attentional focusing),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강도 낮은 자극 선호(low intensity pleasure),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미소와 웃음(smiling and laughter)의 5가지 하위구성요소를 포함한다(S. Putnam & M. Rothbart, 2006). 주의 집중이란 어떤 활동이나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집중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억제 조절이란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지시(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부적절한 반응을 억누르는 능력을 의미한다. 강도 낮은 자극 선호란 자극 강도나 복잡성, 새로움, 모순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즐거운 정도를 말하며, 지각 민감성은 외적 환경으로부터 낮은 강도의 자극을 발견하는 정도를 뜻하고, 미소와 웃음은 자극 강도, 복잡성 및 모순 정도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M. Rothbart, S. Ahadi, K. Hershey, & P. Fisher, 2001).

이러한 의도적 통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의도적 통제의 발달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 가정에서 부모가 보고한 점수와 기관에서 교사가 보고한 점수, 실험상황에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한 점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도적 통제의 발달양상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연령에 따른 변화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에 따른 의도적 통제의 발달양상을 살펴본 국외 선행연구들(G. Kochanska, K. Coy, T. Tjebkes, & S. Husarek, 1998; M. Posner & M. Rothbart, 2000; H. Ruff & M. Rothbart, 1996)은 의도적 통제의 하위 요소인 주의 옮기기와 주의 집중 또는 자발적으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의 발달양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주의력 조절은 억제 조절보다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영아는 8-10개월 경에 주의 집중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여(G. Kochanska et al., 1998) 주의력의 자발적인 통제는 대략 9-18개월 사이에 크게 증가한다(H. Ruff & M. Rothbart, 1996). 반면에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에서의 발달은 30개월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스트룹 과제를 사용하여 영아의 주의력 전환과 행동 억제를 검사해 본 결과 24-30개월 사이에 두드러진 향상을 보이고 36-38개월에는 스트룹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 Posner & M. Rothbart, 2000). 이처럼 의도적 통제는 20-30개월경에 발현하여 이후 주의력의 성숙과 억제 조절의 향상 등으로 인해 2-3년 동안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좀 더 발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동기부터는 그 변화율이 낮아지고 점차 안정적인 성격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 Lee & E. Chung, 2013).

한편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연구되어 왔다. 의도적 통제의 성차를 살펴본 상당수의 선행연구들(G. Kochanska & A. Knaack, 2003; G. Kochanska et al., 2000; K. Lemery-Chalfant, L. Doelger, & H. Goldsmith, 2008; C. Valiente, K. Lemery-Chalfant, & M. Reiser, 2007; Q. Zhou et al., 2007; Q. Zhou, A. Main, & Y. Wang, 2010)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보다 의도적 통제에 있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살펴본 G. Kochanska and A. Knaack(2003)의 연구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K. Lemery-Chalfant et al. (2008)과 C. Valiente et al.(2007)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 N. Eisenberg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그 후 이루어진 Eisenber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 점수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사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 점수(주의 집중과 억제 조절)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도적 통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므로, 그리고 특히 응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있어 부모 보고, 교사 보고 및 실험 측정에 의한 점수를 모두 사용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측정방법에 따른 의도적 통제

의도적 통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Y. Bae and J. Lim (2011)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부모 혹은 교사가 보고하는 질문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실험과제를 통해 연구자가 유아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부모가 보고하는 질문지로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질문지와 실험과제를 동시에 사용하여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의도적 통제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G. Kochanska et al.(2000)의 실험과제와 부모 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36개월 유아들의 의도적 통제를 평가한 A. Karreman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실험 측정 점수와 부모 보고 점수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 Eisenberg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 교사 보고 및 실험 측정 점수 간에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Y. Moon(2010)의 연구에서는 만족지연과제로 측정한 점수와 부모 보고 점수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측정방법에 따른 점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 연구들마다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점수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측정 방법이나 평가자 혹은 평가 상황에 따른 의도적 통제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축적된 연구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에 따른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를 사용하는 부모 및 교사 보고 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있어서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 Chang(2010)은 부모 양육행동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녀의 육

구나 정서표현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자녀에게 한계 설정을 제공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대화를 하는 유도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제안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8개월 영아가 괴로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칭찬, 격려, 웃음, 포옹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인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S. Calkins & M. Johnson, 1998), 24개월일 때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분노, 체벌, 통제 등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면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을 보이고 비순응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S. Calkins, C. Smith, K. Gill, & M. Johnson, 1998). 이와 유사하게 G. Kochanska et al.(2000)의 연구에서 22개월일 때 어머니의 반응성이 22개월과 33개월일 때 아동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였다. 또한 N. Eisenberg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따뜻함과 긍정적인 표현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이 이후 억제 및 주의력 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 Gilliom et al., 2002; M. Kyrios & M. Prior, 1990). 반면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과 권력 행사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 Kochanska et al., 2000; G. Kochanska & A. Knaack, 2003).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양육과 긍정적인 반응이 의도적 통제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과 이러한 부모의 영향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Y. Moon(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유아와의 관계에서 민감하고 비계설정을 잘하며 적대감을 적게 보이는 경우 유아는 만족지연을 더 잘하며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며 특정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을 더 잘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및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Y. Han (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은 의도적 통제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며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의도적 통제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국내 연구는 의도적 통제 발달에 있어 어머니 정서 표현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의도적 통제와 부모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정서표현 혹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어서 부모의 행동 중 정서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도적 통제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부

모 중 아버지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들이 다루었던 부모의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양육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양육행동 차원과 의도적 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의도적 통제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다루고자 한다.

3.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유아의 성별 및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유아기 의도적 통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기존 연구들과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기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의도적 통제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능력이나 정서조절능력을 다룬 선행연구들(H. Chang et al., 2011; E. Lim & S. Kim, 2011; S. Park, 2006)을 살펴보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 성별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 Lim and S. Kim(2011)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력을 매개로 유아의 기질, 부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인과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매개효과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매개하는 모형이 남아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H. Chang et al.(2011)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S. Park(2006)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 능력은 여아의 동기적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만 남아의 경우 그렇지 않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나 조절능력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남아 혹은 여아일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M. Chung and J. Yuh(2010)의 연구에서는 수용적 부모양육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의 수용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우울증상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는 여아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자녀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의 영향이 여아일 때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P. Heaven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몇몇 선행연구들(J. Choi & J. Ryu, 2012; H. Lee & Y. Yu, 2010; H. Oh, 2012; S. Seong, 2007; H. Yu, 2003)에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의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살펴본 H. Oh(2012)는 어머니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신체적인 애정표현과 긍정적인 언어사용으로 친밀함을 더욱 표현하며 이러한 양육행동이 여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주제로 한 H. Lee and Y. Yu(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문제해결능력을 촉진할수록 만4세 남아의 만족지연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그렇지 않았다.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본 J. Choi and J. Ryu(2012)에서도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공격성 요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H. Yu(2003)의 연구에서는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지역의 만 3, 4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S. Seong(2007)은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욱 자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요인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221명과 그들의 부모(각각 221명)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63.24개월($SD=10.17$)이었으며, 만3세 65명(29.4%), 만4세 78명(35.3%), 만5세 78명(35.3%)이었다. 남아는 104명(47.1%), 여아는 117명(52.9%)이고, 출생순위는 첫째(40.3%)와 둘째(37.1%)가 대부분이었다.

유아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 39.15세($SD=3.29$), 어머니 36.79세($SD=3.06$)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부 175명, 79.6%; 모 172명, 77.8%)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고졸 이하 24명(10.9%), 대학원 이상 21명(9.5%)이었고(무응답 1명, 0.5%),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 32명(14.6%), 대학원 이상 17명(7.7%)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123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56명(25.3%), 전문직 23명(10.4%), 기타 19명(8.6%)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141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35명(15.8%), 일반 사무직 25명(11.3%), 자영업 16명(7.2%), 기타 4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은 201-400만원 125명(56.7%), 401-600만원 55명(25.0%), 200만원 미만과 601만원 이상 각각 19명(8.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측정 방법은 첫째, 부모가 응답하도록 개발된 의도적 통제 평가 질문지인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을 통한 부모 보고, 둘째, 교사가 응답하도록 수정된 의도적 통제 평가 질문지인 CBQ-Teacher Form을 통한 교사 보고, 셋째, 연구자가 실험과제(EC Battery)를 통해 유아를 관찰하여 평가하는 실험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1) 부모 보고 질문지

부모가 보고하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만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질 평가지인 CBQ-SF(S. Putnam & M. Rothbart, 2006)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32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뒤 영문학 전공자의 검토를 거쳐서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가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 α 는 .88로 나타났다.

(2) 교사 보고 질문지

유아의 담임교사에게는 부모 보고 질문지와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이지만 교사가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CBQ-Teacher Form을 사용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용 척도의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부모 및 교사용 질문지의 문항의 예시는 <Table 1>과 같다.

(3) 실험과제

G. Kochanska et al.(2000)의 의도적 통제 실험과제는 영아기부터 학령기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실험 도구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실험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몇 선행연구들(R. Eiden, E. Edwards, & K. Leonard, 2007; P. Graziano, S. Keane, & S. Calkins, 2010; L. Lengua, 2008; C. Li-Grining, 2007)을 바탕으로 하여 3개의 과제 즉, 간식 지연(Snack Delay), 거북이와 토끼(Turtle and Rabbit), 그리고 적록 신호(Red-Green Sign) 과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도적 통제 실험 측정 점수는 각 과제의 점수를 표준화한 뒤 모두 합한 값이다.

① 간식 지연(Snack Delay) 과제

간식 지연 과제는 유아의 만족지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유아는 실험자가 종을 들어서 올릴 때까지 투명한 컵(혹은 접시) 안에 있는 사탕을 먹거나 가져가지 않고 탁자 위의 매트에 손을 올리고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제의 점수는 사탕을 먹고 싶은 것을 지연하는 능력과 매트 위에 손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과제들을 시행하기 전 유아에게 초콜릿, 캐러멜 등을 보여주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

Table 1. Example of Questions

Type	Example of questions
For parent	My child
	1. Notices the smoothness or roughness of objects s/he touches.
	2. Notices it when parents are wearing new clothing.
	31. Sometimes becomes absorbed in a picture book and looks at it for a long time
For teacher	32. Enjoys gentle rhythmic activities, such as rocking or swaying.
	The child
	1. Notices the smoothness or roughness of objects s/he touches.
	2. Notices it when others are wearing new clothing.
	31. Sometimes becomes absorbed in a picture book and looks at it for a long time
	32. Enjoys gentle rhythmic activities, such as rocking or swaying.

지 물어보아 선택하도록 한 뒤 모든 과제가 끝난 후 그것을 가지고 간식 지연 과제를 실시하였다. 유아에게 10, 20, 30, 15초까지 기다리도록 총 4번을 시행한 뒤 평균값을 점수로 하였으며, 점수는 실험자가 종을 들기 전에 초콜릿을 먹거나 가져가면 0점, 종을 든 후에 초콜릿을 만지거나 가져가면 4점, 종이 울리기까지 기다리면 7점을 주었고, 점수의 범위는 0-7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간 일치도는 .99이었다.

② 거북이와 토끼(Turtle and Rabbit) 과제

거북이와 토끼 과제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유아가 자신의 움직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과제이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려진 그림판과 토끼 및 거북이 모형을 보여주고 토끼는 집으로 갈 때 길을 따라서 최대한 빨리 가고 거북이는 길을 따라서 최대한 천천히 간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뒤 유아에게 토끼와 거북이 모형을 주고 집으로 가도록 모형을 움직이게 하였다. 토끼와 거북이 각각 두 번씩 시행하였으며, 두 번의 시행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한 후 토끼 이동 시간 평균과 거북이 이동 시간 평균 간의 차이를 구하여서 점수로 하였다. 또한 길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않고 잘 갔는지에 따라서 부가점수를 주었는데, 길을 따라 가지 않았으면 0점, 경로의 전체 모양대로 따라갔으면 1점,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2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간 일치도는 1.00이었다.

③ 적록 신호(Red-Green Sign) 과제

적록 신호 과제는 신호에 맞게 행동을 억누르거나 시작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이 과제에서 유아는 실험자가 초록색 카드를 보여주면 실험자와 같은 쪽 손을 들고, 빨간색 카드를 보여주면 실험자와 반대 쪽 손을 들어야 한다. 실험자는 먼저 초록색 카드를 보여주면서 초록색 카드일 때는 가능한 빨리 같은 방향의 손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한 뒤 10번을 시행하였다. 그런 뒤 빨간색 카드를 보여주면서 빨간색 카드일 때는 가능한 빨리 반대 방향의 손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한번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한 뒤 10번을 시행하였다. 점수는 바르게 손을 들면 3점, 손을 살짝 잘못 들었다가 다시 바르게 바꾸면 2점, 손을 완전히 잘못 들었다가 다시 바르게 바꾸면 1점, 잘못된 손을 들거나 두 손 모두 들거나 혹은 아무 손도 들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 각각 10번씩 시행하여 초록 신호 점수와 빨간 신호 점수의 평균을 점수로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30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간 일치도는 1.00이었다.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K. Bae(2001)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애정적 양육행동(12문항)과 통제적 양육행동(12문항)으로 나누어지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애정적 양육행동 문항의 예로는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하는 등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한다.' 등이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고 겁을 준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척도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여 각각의 총 평균 점수를 구한 뒤 각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한 변수를 변량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 α 는 아버지 .92, 어머니 .90 이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버지 .75, 어머니 .81이었다.

3. 연구 절차

먼저 실험 절차 시 필요한 재료와 기록용지 및 부모와 교사에게 배부할 질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실험 실시와 평가를 바르게 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2인, 그리고 관련학과 졸업자 1인이 함께 실험 실시 과정을 시연해보고, 평가 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와 작성 시간, 실험 소요 시간, 질문지 및 실험에서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9월 D광역시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6명(만 3, 4, 5세 남녀 각각 1명씩)과 그들의 부모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의 오타를 수정하고, 실험 기록·평가용지를 기록에 용이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실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질문지와 실험 절차를 보완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6명과 본 조사 9명의 유아들은 실험을 실시할 때 두 명의 관찰자에 의해 점수가 매겨졌으며, 실험 기록이 부실한 2명을 제외한 총 13명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지고 각 실험과제의 평정자간 일치도(신뢰도)를 구하였다.

본 조사는 3곳의 유치원에서 2011년 9-10월에 시행하였다. 먼저 부모 질문지는 총 330부를 각 가정으로 배부하여 총 235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71.2%), 부모가 질문에 응답한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아 23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유치원 내의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 1명씩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대상 유아의 담임교사 총 11명(만3세반 4명, 만4세반 4명, 만5세반 3명)에게 자신이 담임하는 유아들의 평소 행동에 대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그 중 질문지 응답이나 실험 기록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22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급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의도적 통제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보고 점수와 교사보고 점수의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삼원공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성별과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되도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유아의 월령과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의도적 통제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인구통계학적 분석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 즉, 부모 보고 점수와 교사 보고 점수, 그리고 의도적 통제 실험 z값의 총점 및 원점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 보고 점수의 평균은 5.48점($SD=.55$), 교사 보고 점수의 평균은 4.95점($SD=.57$)이었으며, 실험 측정 각각의 원 점수를 살펴보면 간식 지연 과제는 6.19점($SD=1.98$), 거북이와 토끼 과제는 9.98점($SD=10.24$), 적록 신호 과제는

25.90점($SD=2.84$)으로 각각 점수 범위에서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거북이와 토끼 과제의 경우 표준편차가 10.24점으로 다른 과제들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의 수행에 개인차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과제는 다른 과제와는 달리 토끼와 거북이 모형을 움직인 시간 평균(초)이 점수에 반영되므로 점수 단위가 다른 과제에 비해 작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움직인 시간 평균에 있어서 유아별로 소소한 시간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실험 과제들의 점수 범위가 이처럼 다르므로 각각 표준화한 뒤 합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분석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출생순위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살펴본 결과, 부모 보고 의도적 통제($F=1.053, ns; F=1.294, ns$)¹⁾, 교사 보고 의도적 통제($F=.918, ns; F=.920, ns$), 실험으로 측정된 의도적 통제($F=.161, ns; F=.124, ns$) 모두에서 출생순위와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학력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학력은 부모 보고 의도적 통제($r=.28, p<.001$) 및 실험으로 측정된 의도적 통제($r=.14, p<.05$)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은 부모 보고 의도적 통제($r=.20, p<.01$)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월령은 실험으로 측정된 의도적 통제($r=.34, p<.001$)에서만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의 월령이 높을수록 실험으로 측정된 의도적 통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출생순위, 소득은 제외하고 가정의 교육수준을 대표하는 아버지 학력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21)

Variables		Min	Max	M	S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rent report	4.06	6.88	5.48	.55
	Teacher report	3.31	6.38	4.95	.57
	Test	-5.42	7.48	.00	1.84
	Snack Delay	.00	7.00	6.19	1.98
	Turtle and Rabbit	.30	67.63	9.98	10.24
	Red-Green Sign	11.00	30.00	25.90	2.84

1) 출생순위, 소득 순임

Table 3. Zero-Order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21)

Variables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rent report	Teacher report	Test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rent report	1	
	Teacher report	.30***	1
	Test	.21**	.12
			1

** $p < .01$, *** $p < .001$

Table 4. Paired T-Test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N=221)

Variables	M	SD	t
Attention focusing	Parent report	5.21	.79
	Teacher report	4.83	.88
Inhibitory control	Parent report	4.99	.80
	Teacher report	5.03	.90
Low-intensity pleasure	Parent report	5.59	.70
	Teacher report	4.82	.68
Perceptual Sensitivity	Parent report	5.96	.71
	Teacher report	5.23	.74
Smiling and Laughter	Parent report	5.62	.73
	Teacher report	4.86	.75

*** $p < .001$

과 유아의 월령만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2.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들 간의 관계

1)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방법별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Table 3> 참조), 부모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 점수는 교사가 보고한 점수($r=.30, p<.001$) 및 실험으로 얻은 점수($r=.21, p<.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와 실험으로 얻은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12, ns$). 즉, 부모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 점수는 교사가 보고한 점수 및 실험으로 측정된 점수와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부모 및 교사 보고 점수의 차이

부모 보고 점수와 교사 보고 점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의도적 통제의 하위구성요소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4> 참조), 억제 조절($t=-.75, ns$)

을 제외한 주의 집중($t=5.59, p<.001$), 강도 낮은 자극 선호($t=13.65, p<.001$), 지각 민감성($t=11.12, p<.001$), 미소와 웃음($t=11.70, p<.001$)에서 모두 부모 보고 점수가 교사 보고 점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 측정)의 차이

1) 유아 성별과 아버지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측정)의 차이

유아 성별과 아버지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측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공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아버지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의도적 통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으며, 삼원공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다변량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Table 5.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by Preschoolers' Gender and Paternal Parenting (N=221)

Variables		Gender	n	M(SD)			
Affectionate parenting	Controlled parenting			Parent report	Teacher report	Test	
High	High	Boys	33	5.54(.57)	4.84(.48)	-.41(1.82)	
		Girls	33	5.74(.44)	5.17(.54)	.42(1.48)	
		Total	66	5.64(.52)	5.00(.53)	.01(1.70)	
	Low	Boys	30	5.64(.45)	4.99(.42)	-.62(2.10)	
		Girls	27	5.71(.60)	4.50(.65)	.21(1.72)	
		Total	57	5.67(.52)	4.99(.53)	-.23(1.96)	
	Total	Boys	63	5.59(.52)	4.91(.45)	-.51(1.94)	
		Girls	60	5.73(.51)	5.09(.59)	.33(1.58)	
		Total	123	5.66(.52)	4.50(.53)	-.10(1.82)	
	Low	High	Boys	25	5.10(.56)	4.50(.59)	.12(1.74)
			Girls	25	5.44(.46)	5.08(.56)	.86(2.09)
			Total	50	5.27(.53)	4.79(.64)	.49(1.94)
Low		Boys	16	4.95(.42)	4.66(.56)	-.13(1.86)	
		Girls	32	5.41(.48)	5.14(.49)	-.31(1.71)	
		Total	48	5.26(.50)	4.98(.56)	-.25(1.74)	
Total		Boys	41	5.04(.51)	4.56(.58)	.02(1.77)	
		Girls	57	5.42(.46)	5.11(.52)	.20(1.96)	
		Total	98	5.26(.52)	4.88(.61)	.13(1.87)	
Total		High	Boys	58	5.35(.60)	4.69(.55)	-.18(1.79)
			Girls	58	5.61(.47)	5.13(.55)	.61(1.76)
			Total	116	5.48(.55)	4.91(.59)	.21(1.81)
	Low	Boys	46	5.40(.55)	4.88(.49)	-.45(2.01)	
		Girls	59	5.55(.55)	5.07(.57)	-.07(1.72)	
		Total	105	5.48(.55)	4.99(.54)	-.24(1.85)	
	Total	Boys	104	5.37(.58)	4.77(.53)	-.30(1.89)	
		Girls	117	5.58(.51)	5.10(.56)	.27(1.77)	
		Total	221	5.48(.55)	4.95(.57)	.00(1.84)	

유아 월령($\lambda=.897, p<.001$)과 아버지 학력($\lambda=.944, p<.01$), 독립변수인 유아 성별($\lambda=.870, p<.00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 수준($\lambda=.865, p<.001$)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lambda=.955, p<.05$)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월령은 실험 측정 점수에($F=24.168, p<.001$), 아버지의 학력은 부모 보고 점수($F=10.350, p<.01$)와 실험 측정 점수에($F=4.410, p<.05$), 성별은 부모 보고($F=13.469, p<.001$),

교사 보고($F=23.117, p<.001$), 실험 측정 점수($F=4.736, p<.05$) 모두에, 애정적 양육은 부모 보고 점수에($F=28.396, p<.001$)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성별과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모 보고($F=3.979, p<.05$) 및 교사 보고($F=6.251, p<.05$)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 및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성별과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Figure 1>과 같으며, 단순주효과검증 결과 부모 보고 점수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

Table 6. Three-Way Covariance · Multivariate Analysi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by Preschoolers' Gender and Paternal Parenting (N=221)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Wilks'λ	SS	df	MS	F
Month	Parent report	.897***	.075	1	.075	.307
	Teacher report		.053	1	.053	.186
	Test		70.608	1	70.608	24.168***
Father's education	Parent report	.944**	2.520	1	2.520	10.350**
	Teacher report		.090	1	.090	.313
	Test		12.884	1	12.884	4.410*
Gender	Parent report	.870***	3.279	1	3.279	13.469***
	Teacher report		6.620	1	6.620	23.117***
	Test		13.916	1	13.916	4.763*
Affectionate parenting	Parent report	.865***	6.913	1	6.913	28.396***
	Teacher report		1.089	1	1.089	3.802
	Test		1.930	1	1.930	.660
Controlled parenting	Parent report	.988	.006	1	.006	.025
	Teacher report		.154	1	.154	.539
	Test		5.040	1	5.040	1.725
Gender*Affectionate parenting	Parent report	.955*	.969	1	.969	3.979*
	Teacher report		1.790	1	1.790	6.251*
	Test		1.182	1	1.182	.404
Gender*Controlled parenting	Parent report	.990	.023	1	.023	.096
	Teacher report		.593	1	.593	2.070
	Test		.243	1	.243	.183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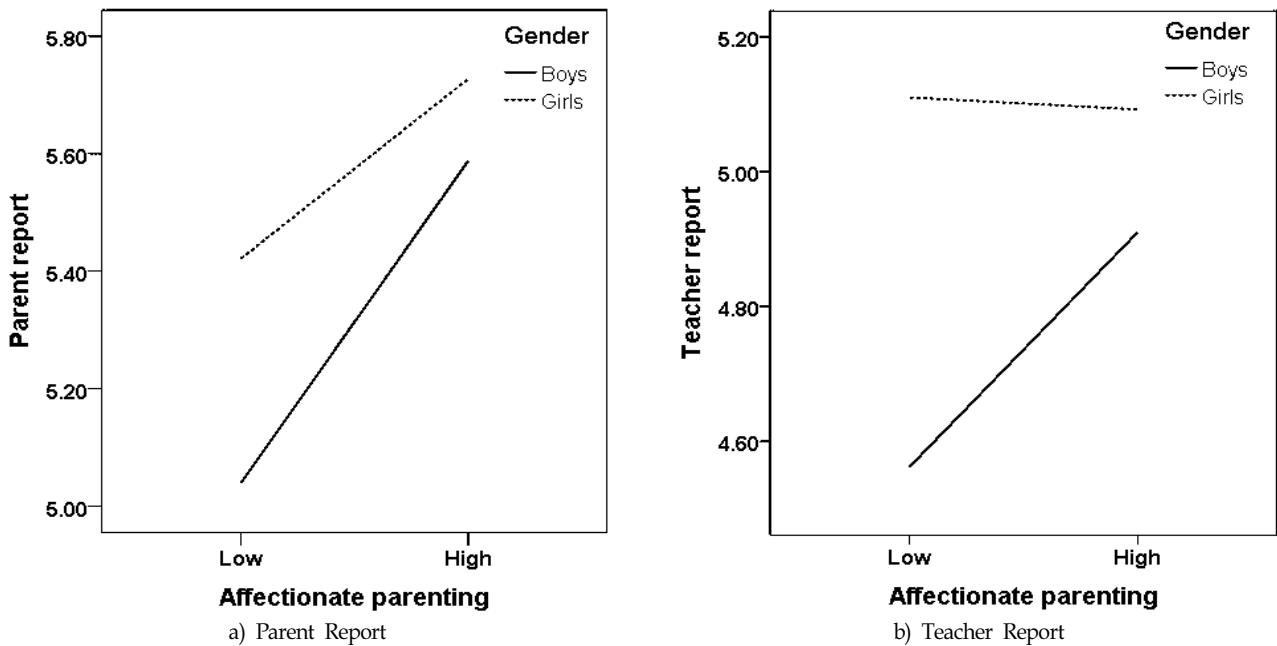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Paternal Affectionate Parenting

Table 7. Regression Model Predicting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ternal Parenting (N=221)

	Parent report						Teacher report					
	Boys			Girls			Boys			Girls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Month	.001	.005	.013	.001	.004	.026	.004	.005	.081	-.001	.005	-.020
Father's education	.225	.094	.213*	.193	.093	.192*	.063	.096	.065	-.010	.107	-.009
Affectionate parenting	.385	.082	.416***	.167	.074	.210*	.219	.084	.258*	.015	.085	.018
F	11.510***			4.343**			2.871*			.030		
R ²	.257			.103			.079			.02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by Preschoolers' Gender and Maternal Parenting (N=221)

Variables		M(SD)				
Affectionate parenting	Controlled parenting	Gender	n	Parent report	Teacher report	Test
High	High	Boys	24	5.63(.44)	4.94(.42)	-.17(1.84)
		Girls	21	5.66(.43)	5.26(.57)	.46(1.63)
		Total	45	5.65(.43)	5.09(.52)	.12(1.76)
	Low	Boys	24	5.75(.59)	4.93(.47)	-.19(1.79)
		Girls	39	5.71(.49)	4.99(.63)	.16(1.55)
		Total	63	5.73(.53)	4.97(.57)	.03(1.64)
	Total	Boys	48	5.69(.52)	4.94(.44)	-.18(1.80)
		Girls	60	5.70(.47)	5.09(.62)	.27(1.57)
		Total	108	5.70(.49)	5.02(.55)	.07(1.68)
Low	High	Boys	34	5.13(.49)	4.67(.57)	-.34(1.58)
		Girls	28	5.56(.58)	5.09(.54)	.53(2.07)
		Total	62	5.33(.57)	4.86(.59)	.05(1.86)
	Low	Boys	22	5.05(.48)	4.57(.55)	-.49(2.50)
		Girls	29	5.35(.46)	5.14(.43)	.01(1.86)
		Total	51	5.22(.49)	4.89(.56)	-.20(2.15)
	Total	Boys	56	5.10(.48)	4.63(.56)	-.40(1.97)
		Girls	57	5.46(.53)	5.12(.49)	.27(1.97)
		Total	113	5.28(.53)	4.88(.58)	-.06(1.99)
Total	High	Boys	58	5.34(.53)	4.78(.53)	-.27(1.68)
		Girls	49	5.61(.52)	5.17(.56)	.50(1.88)
		Total	107	5.46(.54)	4.96(.57)	.08(1.81)
	Low	Boys	46	5.41(.64)	4.76(.54)	-.33(2.14)
		Girls	68	5.56(.51)	5.05(.56)	.10(1.68)
		Total	114	5.50(.57)	4.94(.57)	-.07(1.88)
	Total	Boys	104	5.37(.58)	4.77(.53)	-.30(1.89)
		Girls	117	5.58(.51)	5.10(.56)	.27(1.77)
		Total	221	5.48(.55)	4.95(.57)	.00(1.84)

Table 9. Three-Way Covariance · Multivariate Analysi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by Preschoolers' Gender and Maternal Parenting (N=221)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Wilks' λ	SS	df	MS	F
Month	Parent report		.009	1	.009	.081
	Teacher report	.882***	.011	1	.011	.038
	Test		82.606	1	82.606	28.035***
Father's education	Parent report		2.945	1	2.945	12.324**
	Teacher report	.936**	.030	1	.030	.102
	Test		11.410	1	11.410	3.872
Gender	Parent report		1.742	1	1.742	7.291**
	Teacher report	.891***	5.763	1	5.763	19.813***
	Test		15.747	1	15.747	5.344*
Affectionate parenting	Parent report		7.286	1	7.286	30.493***
	Teacher report	.873***	1.098	1	1.098	3.774*
	Test		1.683	1	1.683	.571
Controlled parenting	Parent report		.011	1	.011	.048
	Teacher report	.994	.327	1	.327	1.125
	Test		.703	1	.703	.238
Gender*Affectionate parenting	Parent report		1.244	1	1.244	5.207*
	Teacher report	.962*	1.448	1	1.448	4.978*
	Test		.201	1	.201	.068
Gender*Controlled parenting	Parent report		.311	1	.311	1.303
	Teacher report	.993	.040	1	.040	.138
	Test		.762	1	.762	.259

* $p < .05$, ** $p < .01$, *** $p < .001$

양육 수준이 높을 때는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t=-1.503$, ns)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 남아보다 여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t=-3.856$, $p<.001$). 이러한 경향은 교사 보고 점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양육수준 상 $t=-1.927$, ns ; 양육수준 하 $t=-4.913$, $p<.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및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해 성별에 따라 아버지 애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보고 점수의 경우 남아($\beta=.416$, $p<.001$)와 여아($\beta=.210$, $p<.05$)일 때 모두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 보고 점수의 분산에 대해서는 남아와 여아일 때 각각 25.7%와 10.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고 점수에 대해서는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258$, $p<.05$), 분산의 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8$, ns). 즉,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여아보다 남아의 의도적 통제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 성별과 어머니의 애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측정)의 차이

유아 성별과 어머니의 애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 의도적 통제(부모 보고, 교사 보고, 실험측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공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어머니 애정적 · 통제적 양육행동에 따른 의도적 통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8>과 같으며, 삼원공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10. Regression Model Predicting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Maternal Parenting (N=221)

	Parent report						Teacher report					
	Boys			Girls			Boys			Girls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Month	.002	.004	.033	.003	.004	.066	.004	.005	.084	-.002	.005	-.034
Father's education	.136	.086	.128	.184	.090	.183 *	.037	.098	.038	.009	.106	.009
Affectionate parenting	.660	.092	.588 ***	.296	.087	.306 **	.285	.104	.277 **	-.065	.103	-.061
F	22.585***			6.617***			3.115*			.151		
R ²	.404			.149			.085			.00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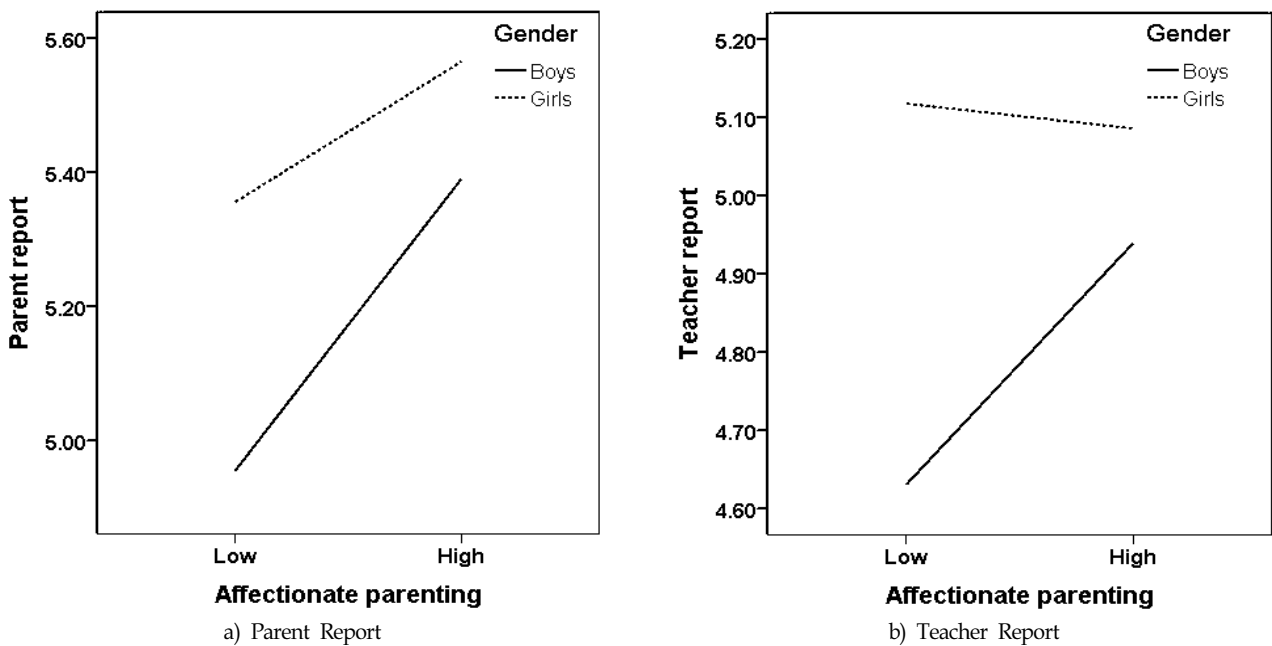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Maternal Affectionate Parenting

<Table 9>에서 볼 수 있듯이, 다변량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유아 월령($\lambda=.882, p<.001$)과 아버지 학력($\lambda=.936, p<.01$), 독립변수인 유아 성별($\lambda=.891, p<.00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수준($\lambda=.873, p<.001$)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lambda=.962, p<.05$)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월령은 실험 측정 점수에 ($F=28.035, p<.001$), 아버지의 학력은 부모 보고 점수에 ($F=12.324, p<.01$), 성별은 부모 보고($F=7.291, p<.01$), 교사 보고($F=19.813, p<.001$), 실험 측정 점수($F=5.344, p<.05$) 모두에, 애정적 양육은 부모 보고 점수($F=30.493, p<.001$)와 교사 보고 점수에($F=3.774, p<.05$)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성별과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모 보고 ($F=5.207, p<.05$) 및 교사 보고($F=4.978, p<.05$) 점수에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 및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성별과 어머니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Figure 2>와 같으며, 단순주효과검증 결과 먼저 부모 보고 점수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 때는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t=-.071, ns$)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 남아보다 여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t=-3.736, p<.001$). 이러한 경향은 교사 보고 점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양육수준 상 $t=-1.434, ns$; 양육수준 하 $t=-4.934, p<.001$).

또한 부모 및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해 성별에 따라 어머니 애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보고 점수의 경우 남아

($\beta=.588, p<.001$)와 여아($\beta=.306, p<.01$)일 때 모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 보고 점수의 분산에 대해서는 남아와 여아일 때 각각 40.4%와 1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고 점수에 대해서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277, p<.01$), 분산의 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061, ns$).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여아보다 남아의 의도적 통제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아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된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부모 보고, 교사 보고, 그리고 실험과제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보이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유치원과 실험 상황에서 보이는 의도적 통제 수준과 서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G. Kochanska et al.(2000)의 실험과제와 부모 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36개월 유아들의 의도적 통제를 평가한 A. Karreman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실험 측정 점수와 부모 보고 점수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유치원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교사가 관찰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실험 상황에서 나타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비교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 Moon(2010)의 연구에서 만족지연과제로 측정된 점수와 부모 및 교사 보고 점수 간에 상관이 없거나 낮은 상관이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A. Cumberland-Li, N. Eisenberg, and M. Reiser(2004)와 N. Eisenberg et al.(2005)에서는 교사가 보고한 유아들의 주의력 조절 및 억제 조절 점수가 실험 측정 점수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들이 사용한 실험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다른 과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과제를 사용하느냐, 즉 실험 측정에서 주로 평가되는 것이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모 및 교사 보고 점수와의 상관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서로 다른 평정자에 따른 평가에서 실제 유아의 행동이 가정과 보육·유아교육기관이라는 환경에서 서로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평정자에 의한 서로 다른 평가에 대해서 누가 평정한 것이 옳은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과 환경에서 유아의 기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 Achenbach, S. McConaughy & C. Howell, 1987). 이처럼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과 유치원에서 나타난 의도적 통제와 실험 상황에서 연구자가 관찰한 의도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도적 통제의 발달양상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유아의 발달 상태나 행동 특성을 파악할 때 교사 혼자만의 단일 차원에서의 평가보다는 평정 척도 자료 및 가정에서의 행동 특성 파악을 위한 부모 보고 자료 등을 통합하여 유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한 부모 및 교사 보고 의도적 통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부모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유아의 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평가를 비교한 선행 연구들(H. Hwang, 2006; H. Kang & H. Cho, 2008; S. Lee & J. Choi, 2012)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평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와 부모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교사와 부모가 유아에 대해 다른 기대를 하고 있거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유아가 가정과 기관이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H. Kang & H. Cho, 2008; S. Lee & J. Choi, 2012).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의도적 통제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의도적 통제를 평가할 때 주로 부모 보고 질문지가 사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 보고만 사용하기 보다는 교사 혹은 실험 등의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영아기(G. Kochanska et al., 2000), 유아기(G. Kochanska & A. Knaack, 2003; Y. Kwon, 2011), 및 아동기(Y. Han, 2010; K. Lemery-Chalfant et al., 2008) 모두 여아에게서 의도적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성차는 어린 연령에서부터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도적 통제의 성차에 대해 G. Kochanska et al.(2000)과 K. Lemery-Chalfant et al.(2008)은 그 원인이 양육 등의 환경보다는 타고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여아가 의도적 통제를 남아보다 더 잘하는 원

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선천적인 성향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 교사 보고 및 실험 측정 점수에서 모두 일관되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질문지 보고자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나타난 국외 선행연구들(N. Eisenberg et al., 2005; N. Eisenberg et al., 2007)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지만, 의도적 통제의 성차를 기초분석으로 다룬 국내 연구들(Y. Han, 2010; Y. Kwon, 2011; Y. Lee & E. Chung, 2013)과는 동일한 결과이므로 의도적 통제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Kochanska et al.(2000)과 K. Lemery-Chalfant et al.(2008)이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성차는 선천적인 성향과 남아보다 여아에게 통제 혹은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육행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 점수가 더 높았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 및 교사가 보고한 의도적 통제 점수가 각각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따뜻하고 긍정적인 표현과 지지적인 양육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Y. Bae & J. Lim, 2012; N. Eisenberg et al., 2003; M. Gilliom et al., 2002; M. Kyrios & M. Prior, 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의도적 통제와 유사한 변인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Y. Lee(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은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H. Lim and S. Park (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있어 공격적 표현과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할 때 애정을 가지고 대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규칙을 잘 따르는 능력이 증가하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아기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대상인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도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있어 주요양육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아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의도적

통제 수준이 여아와 비슷하지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애정적이지 않은 즉,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여아에 비해 훨씬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과 부모 양육에 있어 큰 시사점을 남긴다. 즉, 여아에 비해 남아가 보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 통제에 있어 성별 차이는 위에서 제한한대로 한국의 문화나 양육 등의 환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환경보다는 타고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 드러난 성차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한다면 의도적 통제에 있어 성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보통 남아보다 여아의 발달에 있어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더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선행연구(Y. Boo, 2012; S. Park, 2006)의 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남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수준의 높고 낮음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의도적 통제가 외현화 문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남아이면서 낮은 수준의 애정적 양육을 받는 경우 훨씬 더 부정적인 발달적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정적 양육행동을 통한 의도적 통제의 향상은 특히 남아에게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유아 성별과 부모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양육행동 등 의도적 통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가 남아와 여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으로만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환경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몇몇 선행연구(G. Kochanska et al., 2000; G. Kochanska & A. Knaack, 2003)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양육행동 수준에 따라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벌, 강압적 지시 등 구체적인 양육행동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기관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난 의도적 통제와 실험 상황에서 연구자가 평가한 의도적 통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부모 보고 및 교사 보고 점수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의도적 통제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의도적 통제를 평가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의도적 통제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동안 나타나는 의도적 통제의 전반적인 발달양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부모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 의도적 통제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취약했던 의도적 통제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 및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발달양상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나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즉, 부모나 교사가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의 경우에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애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정이나 보육·교육 현장에서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2), 213-232.
-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M. (1993). Child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5), 359-378.
- Bae, K. J. (2001). *Effects of individu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on preschoolers' theory-of-mi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Bae, Y. J.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ffortful contro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Bae, Y. J., & Lim, J. Y. (2011).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effortful contro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57-70.
- Bae, Y. J., & Lim, J. Y. (2012). Factors affecting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Focusing on the parents' an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3), 1-2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oo, Y. (2012).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3(1), 127-152.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Press.
- Calkins, S. D., & Johnson, M. C. (1998). Toddler regulation of distress to frustrating events: Temperamental and maternal correlat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3), 379-395.
- Calkins, S. D., Smith, C. L., Gill, K. L., & Johnson, M. C. (1998). Maternal interactive style across contexts: Relations to emotional,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gulation during toddlerhood. *Social Development*, 7(3), 350-369.
- Chang, H. I. (2010). The self-regulative temperament of effortful control: A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3(3), 19-35.
- Chang, H., Olson, S. L., Sameroff, A. J., & Sexton, H. R. (2011). Child effortful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1), 71-81.
- Choi, J.-S., & Ryu, J.-I.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by adolescents on self-control and aggres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1), 273-290.
- Chung, M. J., & Yuh, J. (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 parental acceptance 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Examining gender-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9), 103-111.
- Cumberland-Li, A., Eisenberg, N., & Reiser, M. (2004). Relations of young children's agreeableness and resiliency to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Social Development*, 13(2), 193-212.
- Eiden, R. D., Edwards, E. P., & Leonard, K. E. (2007). A conceptu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mong kindergarten children of alcoholic families: Role of parenting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87-1201.
- Eisenberg, N., Ma, Y., Chang, L., Zhou, Q., West, S. G., & Aiken, L. (2007).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reactive undercontrol, and anger to Chinese children's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2), 385-409.
- Eisenberg, N., Smith, C. L., Sadovsky, A., & Spinrad, T. L. (2004). Effortful control: Relations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259-282).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Valiente, C., Fabes, R. A., Smith, C. L., Reiser, M., Shepard, S. A., Losoya, S. H., Guthrie, I. K., Murphy, B. C., & Cumberland, A. J. (2003). The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ego control to children's resiliency and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4), 761-776.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and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Gilli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Lukon, J. L., & Winslow, E. (2002). Anger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222-235.
- Gra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 Graziano, P. A., Keane, S. P., & Calkins, S. D. (2010). Maternal behaviour and children's early emotion regulation skills differentially predict development of children's reactive control and later effortful control.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9(4), 333-353.
- Han, Y. S. (2010).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on children's aggression: Mediating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eaven, P. C., Newbury, K., & Mak, A. (2004). The impact of adolescent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on adolescent levels of delinquenc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1), 173-185.
- Hwang, H.-J. (2006). Agreemen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f preschooler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5, 339-359.
- Jang, H. S.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effortful control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bused experience and reactive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I.-H., & Hwang, H.-J. (2009). A study on development of child temperament rating scale for parents: From age 3 to Age 5.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5), 91-116.
- Kang, H. K., & Cho, H. S. (2008). A comparis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n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2(2), 171-193.
-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G., & Deković, M. (2008).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ersonality and observed parenting: The moderating role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3), 723-734.
- Kochanska, G., Coy, K. C., Tjebkes, T. L., & Husarek, S. J. (1998).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ity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9(2), 375-390.
- Kochanska, G., Murray, K.,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 Kochanska, G., & Kn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

- 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won, Y. H. (2011). Relationships of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role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3), 595-609.
- Kyrios, M., & Prior, M. (1990). Temperament, stress and family factors in behavioural adjustment of 3-5 year ol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1), 67-93.
- Lee, H. S., & Yu, Y. O. (2010). Relation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beliefs and their child's self-control according to age and gend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239-260.
- Lee, S. Y., & Choi, J. A. (2012). A comparison study of parent and teacher ratings on protective factors and behavioral concerns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3), 59-84.
- Lee, Y. J., & Chung, E. J. (2013).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and preschooler'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32(1), 231-249.
- Lee, Y.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abilities*, 26(3), 63-90.
- Lemery-Chalfant, K., Doelger, L., & Goldsmith, H. H. (2008). Genetic relations between effortful and attentional control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4), 365-385.
- Lengua, L. J. (2008). Anxiousness, frustration, and effortful control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justment in middle-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7(3), 554-577.
- Li-Grining, C. P. (2007). Effortful control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in three citie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1), 208-221.
- Lim, E.-J., & Kim, S.-Y. (2011). A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4), 5-29.
- Lim, H. S., & Park, S. Y. (2002).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37-54.
- Moon, Y. K. (2010).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on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Oh, H.-J. (2012).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young children's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by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Korea.
- Oh, H. J., & Lee, J.-H. (2013).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young children's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by gend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185-203.
- Park, J. S. (2013).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autonomy support and involvement: The mediation effects of fear and effortful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2006).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efficacy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osner, M. I., & Rothbart, M. K. (2000). Developing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12, 427-441.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3-7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5), 1394-1408.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personality development* (pp. 105-17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 pp.37-86). Hillsdale, NJ: Erlbaum.
- Rothbart, M. K., & Sheese, B. E. (2007).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ew York: Guilford.
- Ruff, H. A., & Rothbart, M. K. (1996). *Attention in early development: Themes and vari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ds, J., Kieras, J. E., Rueda, M. R., & Rothbart, M. K. (2007). Effortful control, executive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7-10-year-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4), 474-488.
- Spinrad, T., Eisenberg, N., & Gartner, B. (2007). Measure of effortful regulation for young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 606-626.
- Seong, S.-L. (2007). *A study on th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children's sex an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 Venn, J. J. (2000). *Assess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Yu, H.-J. (2003).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bringing-up attitude and relation with a social emotion development of an inf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Korea.
- Zhou, Q., Hofer, C., Eisenberg, N., Reiser, M., Spinrad, T. L., & Fabes, R. A. (2007).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ttention focusing, attentional and behavioral persistence, and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school-age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369-385.
- Zhou, Q., Main, A., & Wang, Y. (2010). The relations of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and anger/frustration to chines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1), 180-196.

접수 일 : 2013년 11월 25일

심사 일 : 2014년 0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4월 08일